



‘새도우 파이트’

원색에 담은 전쟁과 평화

광주출신 獨 스타갤러리 전속작가 세오 서울 나들이

독일에서 활동 중인 광주 출신 작가 세오(32·본명 서수경·사진)가 이달 10일까지 서울시 청담동 마이클 스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기획전에 참여해 '5월 광주의 아픔'을 담은 작품을 고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전쟁에 대항하여'(Crossway against the war)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출품했다. 작품들은 주로 동양화의 바탕 위에 페인팅과 한지 풀라주를 합성한 것들이며, 동양적인 색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녀는 그동안 서정적인 감각으로 불상과 풍경을 접목한 작품이나 누런 버가 익어가는 눈을 그린 작품을 국내에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왔다.

'전쟁에 대항하여' 연작은 가로, 세로 각 250cm 크기의 대작들로 총이십여점, 군인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자유한 면지 속에서 밝은 원색과 군인의 지친 얼굴 표정을 통해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기운을 포착했다.

또 어린 군인들이 가득 쌓인 기관총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작품과 소년병이 땅에 입을 맞추는 작품은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돌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새도우 파이트'(Shadow Fight)는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어린이 4명을 등장시켰다.

자유한 휴먼지 사이로 육중한 몸을 드러낸 탱크와 돌을 던 아이들의 어린 팔을 대비시켜 평화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또 노랗게 펼쳐진 보리밭 사이로 서로 부촉하며 걷는 병사들의 뒷모습에도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녀는 "독일에서 5·18 항쟁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고, 연상되는 이미지와 생각되는 단어들을 메모하면서 언젠가는 5월 작품을 해보려겠다고 계획했다"면서 "내년에 광주시립미술관과 스타갤러리의 교류전을 통해 5·18 항쟁을 형상화한 작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그녀는 독일 베를린 국립 미술대학에서 게오르그 바셀리츠의 제자로 미술을 수학한 뒤 독일과 유럽에서 유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의 그룹전과 라우센버그 회고전에 참여해 세계적인 주목받고 있다.

또 최근 독일 쾰른에 세워진 아트 호텔(Art'otel)에 단독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마이클 스타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546-79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매, 화폭에 단풍 들었네!

신세계갤러리 내달 6일까지 가을전



박구환 작 'in to fall'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0월6일까지 '가을냄새' 물씬 풍기는 작품을 모은 '오매, 단풍 들었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정연, 김효삼, 박구환, 박병우, 박태후, 신호운, 이승대, 전명옥, 최미연씨 등이 참여해 가을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서예가 전명옥씨는 전시 타이틀인 '오매, 단풍 들었네'를 자유로운

서체로 써나갔다. 최미연씨는 전통 한국화의 기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유쾌하게 풀어낸 금강산의 가을을 그렸다. 또 김효삼씨는 남도의 풍성한 가을을 수채화로 표현했고, 박병우씨는 넉넉한 햇살 아래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를 형상화했다.

한편 추석인 10월3일(토)은 휴관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치원·초등생 68% 예술 사교육중

문화관광부 조사... 1인당 월 평균 22만원 지출

유·초등생의 어린 자녀를 둔 가구 중 68.1%는 자녀에게 예술 분야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자녀 1인당 예술 사교육비 부담액은 월평균 22만원대에 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8월 말 5살부터 초등 6년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천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자녀에게 예술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응답자가 681명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술 사교육이 현재 진행형인 가구의 응답률을 예술 장르별로 보면 음악이 48.3%, 미술 38.9%,

무용 9.4% 순으로 높았다.

또 자녀 연령대별로는 초등 저학년 79.1%, 초등 이전 64.3%, 초등 고학년 60.3% 등이며 사교육 방식별로는 학원이나 어린이집의 특기적성 교육 18.0%, 개인과의 11.1%, 사설 문화 센터 9.6%, 그룹과의 6.1%, 공공기관 4.7%, 방문학습 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세계 민속음악 광주서 만나요

내달 5일 문예회관



2009 아시아·남아메리카 민족음악의 밤 행사가 오는 10월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이사장 김광복 전남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티벳, 베트남, 몽골, 중국, 에콰도르, 한국의 음악인들이 참여한다.

1부 아시아 민족음악에서는 김광복·이대후씨가 '무속의 피리소리 훈'을 들려주며 중국의 통소와 양금어우러진 '죽향', 베트남의 단보우와 탄쟁 연주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한국무용가 서영씨의 '태평무'와 황승욱씨 등이 들려주는

가야금병창 '새타랑', 중국 고쟁 독주 등이 펼쳐지며 3부에서는 에콰도르 안데스 음악단이 '엘콘도르 파사' '피투꼬', '차차차', '츄노꽃이 필 때', '희망' 등 다양한 남미음악을 들려준다.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062-385-0815. /김미연기자 mekim@

가을밤에 울리는 '한국의 소리'

광주가야금연주단 창단 20돌 기념연주회 29일 문예회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광주가야금연주단(단장 이영아) 기념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 연주단체인 광주가야금연주단은 무형문화재 제23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이수자

인 전남대 성애순 교수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 꾸려진 모임이다.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의미있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위촉했다. 정현수(전남대 음악과 교수)씨가 '가야금 삼중합주를 위한 삼보(三寶)'를 작곡했으며 김미영 곡 '진도 아리랑'은 전라도 지역의 대표 민요를 25현 가야금 5중주곡으로 새롭게 구성한 곡이다. 그밖에 김보현 곡 '아리랑 놀이', 황의중 곡 '경복궁 타령', 김선 곡 '25현 가야금을 위한 사랑가', '25현 가야금을 위한 뱃노래 협

주곡' 등을 선사한다.

출연진은 성애순·이영아·강혜경·박은명·김한아·홍윤진·송정량씨 등 30여명이며 타악연주자 이왕재씨가 찬조출연한다. 해설은 김세종(전남대 국악과 겸임교수)씨가 맡았다.

1989년 창단된 광주가야금연주단은 발레와 가야금의 만남, 전통음악과 영화음악의 만남 등 다양한 기획 공연을 펼쳐왔다. 또 국악 대중화를 위해 4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2004년에는 KBS국악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제작제특별과정
2009.10.01 - 3개월

개인경력대 200%
크육비지원

개강 / Start! 10월 1일

중형 IT 직업전문학교

2010년 대비 **9급 공무원**

48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공과)
"시험 다르지만, 공부도 다릅니다."

행정직/세무직/검찰직/교정직/소방직
교육행정직/기술직/사회복지직/보건직

전 4종 2개월 완성!

개강 : 10월 5일 주, 휴일만 일시대강

호남의 인재양성! 지난 48년, 늘 '부용고사' 기 함께 하셨습니다.

고시 평가 **무등고시학원**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영문출판사

070-7433-0594

김재규경찰학원의 활적 신호는 계속됩니다!

김주김재규경찰학원